

“이제는 사국시대를 이야기하자”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전3권)》 펴낸 김태식 교수



국내 가야사 연구의 일인자로 통하는 김태식 교수(46, 홍익대 역사교육과)가 가야의 전모를 밝힌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전3권)》(푸른역사)를 펴냈다. 원고작성에 7년, 사진·지도 등 도판 작업에 2년, 편집만도 1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가야사 연구를 집대성했다. 김교수는 언론의 집중조명, 독자들의 성원에 “운 좋게도 대중들에게 가야사 연구성과를 알리는 작업을 맡게 됐다”며 겸손해한다.

시대사·분류사·각국사로 가야사 집대성해

제1권 《수로왕에서 월광대자까지》는 한국사 전체에서 가야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 개념들로 말문을 연다. 지역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가야사의 범주는 어떻게 되는지, 가야의 뜻과 바른 한자 표기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설득의 지난한 과정’으로서 역사연구와 서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가야의 전개과정과 후기 가야의 전말, 가야 멸망의 원인과 가야 유민들의 일대기를 다루는 등 가야 시대사를 조망한다.

제2권 《가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는 가야의 분류사다. 가야의 정치체제, 경제·사회구조·사상·대외관계로 본 사회상, 지명과 관련한 학술과 전·후기 가야의 영역을 꼼꼼하게 소개한다. 소국 사이의 관계와 연맹체론, 중앙 집권체제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야의 강성을 증명하는 철기제작과 교역을 살펴보고, 다양하고 풍부한 고고학 자료를 통해 가야 문화권의 범위를 추정한다.

제3권 《왕들의 나라》는 각국사다. 가야연맹체에 포함된 32개 소국들에 대해 1국 1사를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으로 서술하고 권역별로 분류해 제시한다. 현재 지명을 알 수 없는 낙노국과 보라국을 제외하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전3권)》는 한국사 연구의 미답지였던 가야를 학문적으로 풀어낸 최초의 대중역사서다. 이 책은 상상과 왜곡이 난무했던 가야사를 철저한 고증과 논증으로 완벽하게 되살린다. 가야의 전말을 엮은 시대사에 가야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분류사와 각국사를 보태 가야사를 포함한 우리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김태식 교수는 고대사의 외연을 사국시대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맹주국으로 불린 가락국(금관가야)·반과국(대가야)·안라국(아라가야)과 북부의 12개국, 남부의 15개국을 그 특징을 잘 살려 소개한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번성한 문화를 이룬 가야의 연대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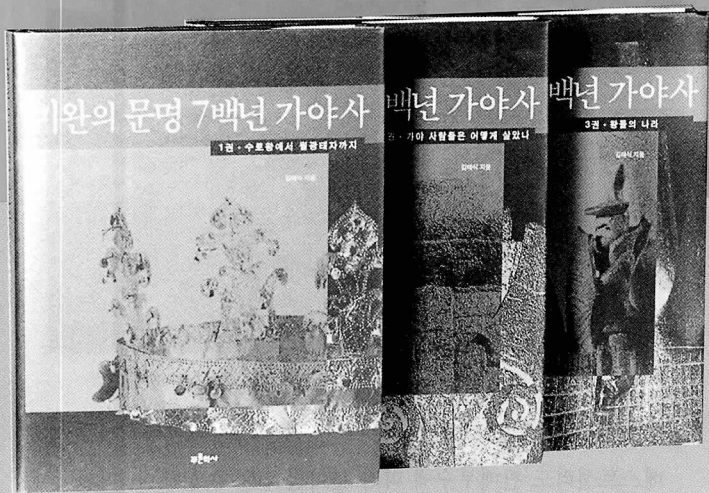
“삼국시대라는 말로 간단히 가야의 존재를 지우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비록 가야가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해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삼국을 능가하는 문화적 수준을 꽃피웠다는 데 큰 의의를 뒤야 합니다. 백제에 비해 불과 98년 앞서 멸망했다는 이유로 가야의 7백년 역사가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맹신의 잔재도 가야를 제대로 아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김교수의 간절한 염원은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의 정립’이다. ‘4국’을 아예 거부하거나 더 논의해야 한다며 밀쳐두는 고대사학회에 ‘3국1연’(三國一聯)을 제안하기도 한다. 김교수는 가야를 정당한 고대국가로 인정해 우리 고대사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고대의 역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국시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가야가 남한의 1/3을 차지했고, 신라문화와 합쳐져 삼국통일의 기반이 됐음을 알게 되면, 가야는 우리 역사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게 된다고 말한다.

세력 균형을 이용해 강성한 연맹체 형성해

광복 이후 가야연구가 부진한 데는 임나일본부설의 영향이 크다. 일제강점기 학교에서는 신공왕후의 점령 이후 수백년간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날조된 역사를 주입시켰다. 그 후 가야는 민족의 수치가 됐고 열등한 민족성의 증거가 됐으니, 일제강점기에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970년대 임나일본부설을 직접 배우지 않은 세대들에 의해 가야연구가 시작됐고, 김교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임나일본부설은 학부생 때 선친 친구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푸른역사/B5/316면 내외/29,800원 내외

분은 부진한 사업을 걱정하시며, ‘우리 민족이 못아서 사업이 안된다. 그러니 그 옛날 신공왕후의 지배를 받았지’ 하시더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연배의 어른들은 모두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야사를 연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가야는 강성한 소국들의 대등한 세력균형으로 연맹체를 이뤘다. 김교수는 가야가 연맹체의 세력으로 백제와 신라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고도의 제련 기술로 철기를 생산해 공급했고 낙동강이라는 전체의 지형을 활용해 내륙 깊숙이 해양생산물을 유통시켰으며, 일본과의 교류도 활성화하는 등 가야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물은 가야 영토 전역에서 출토된다.

고고학계의 패거이자 천운이라고 일컫는 부산 복천동고분과 김해 대성동고분은 시내 한가운데서 발견됐다. 고령 지산동고분에서 나온 물고기뼈는 남해산(産)임을 증명해 수상교역의 뚜렷한 증거로 꼽힌다. 창원 다호리고분에서 출토된 붓은 기원전 1세기 경의 것으로 가야의 문화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해 덕산리에서 출토된 기마인물상은 그 모습이 서양중세의 기사상과 일치하는데, 가야의 것은 5세기 유물로 서양과 비교해도 3백년~7백년 정도 세월을 훌쩍 앞지르는 발전상을 보여준다.

김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를 가야의 전영역에서 고루 만날 수 있는 것도 가야가 연맹체였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일찍이 중앙집권화를 이뤄 고대국가로 성장할 경우, 사회의 모든 역량이 수도에 집중되고 유물과 유적도 도읍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남한에서 발견되는 백제와 신라의 유적이 부여, 경주 등 고대국가의 수도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보면 가야 연맹체는 고대 그리스의 연맹체와 흡사하다. 그리스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것은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

는 문자자료 덕분이다. 그러나 가야는 멸망 후 망국민들이 통일신라를 건설하는 데 복무하거나,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존하지 못했다. 통일신라의 역사에서도 신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금관가야의 자취만 조금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6세기 경 대가야의 세력이 금관가야의 10배에 달했다 하니 기존의 국내 역사서에서는 가야의 본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 제대로 인식해야 민족역량 모을 수 있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립하자는 주장은 대개 난리 이후에 개진된다. 일연은 몽고의 침입을 받은 후 《삼국유사》 기이편에 가락국기를, 왕력편에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네 나라 왕들을 기년으로 정리했다. 이는 국난 후 민족의 힘과 의식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시도와 견해는 조선조 실학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 우리 동방이 옛날부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에는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사군(四郡)→이부(二府)→고구려로 전개됐고, 남쪽에는 마한·진한·변한이 각각 백제·신라·가락으로 계승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우리 역사를 고조선→사국(고구려·백제·신라·가야)→고려로 정리한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고대 후기를 발해를 포함한 남북국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한나라 건무 18년을 가락국 시조 김수로 원년으로 보고, 이 해 이후 대국이 셋이고 소국이 하나로 모두 네나라라고 적시하고 있다. 정약용은 《강역고》에서 김해 가락국이 가야제국의 총왕(總王)이었고, 가야는 해운을 잘 이용했으므로 신라보다 훨씬 더 발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김교수의 사국시대 정립 주장도 선대의 주체적인 역사가들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과거가 제대로 평가받을 때 후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꽃 핀 곳에 사는 사람과 일본의 속국이었던 곳에 사는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가야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나라였다는 데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역사학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가장 미래적인 학문입니다.” —차정신 기자

다음 주제는 기마민족설

김교수의 다음 주제는 기마민족설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이 고구려를 거쳐 가야에 머물다 일본에 건너와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예가미의 주장으로, 일본에선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반반,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 더 많이 소개됐다. 기마민족, 기마군단의 핵심유물은 말투구인데 가야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다고 한다. 덕산리의 기마인물상도 한 힌트. 김교수는 앞으로 기마민족설의 기원과 원류를 밝히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